

센젠도 터

호쿠레이에 위치한 센젠도 터는 754년에 중국의 승려인 감진(688~763)이 야시마지 절의 전신을 창건했던 자리라고 추정됩니다. 그 뒤 815년에 구카이(774~835)가 진언종(眞言宗) 절로 변경했을 때, 대지(臺地) 남쪽에 있는 현재의 장소로 이전했습니다.

2000년에 이루어진 발굴 조사에서는 사원을 지을 때 기둥의 토대로서 사용되었다고 생각되는 초석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. 또한 불단(佛壇)에 사용되었다고 보이는, 부리가 여러 개 달린 장식적인 토기 세 점이 발견되어 이곳이 일찍이 신성한 장소였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. 고고학자는 이 유물들이 불당의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센젠도 터 서쪽에 있는 돌 유적은 13세기에 만들어진 묘지라고 추정됩니다.

센젠도 터 가까이에는 센젠도 광장이라는 녹지가 있는데, 화장실과 정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.